

# 녹두꽃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에 이른 것은 그 본뜻이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가운데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의 위에다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한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을 것이니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

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는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다. 임금의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버지가 자애롭고 아들이 효도를 한 뒤에야 국가를 이루어 끝없는 복록을 불러오게 된다. 무안

지금 우리 임금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현량하고 청직한 신하가 있어서 잘 보좌해 다스린다면 예전 훌륭한 임금들의 교화와

치적을 날을 꼬아 기다려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신하가 된 자들은 나라에 보답하려는 생각을 아니하고 한갓 작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임금의 총명

을 가리고 아부를 일삼아 충성스런 선비의 간언을 요사스런 말이라 하고 청직한 사람을 비도(匪徒)라 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바깥

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아치만이 득실거린다. 인민의 마음은 날로 더욱 비틀어져서 들어와서는 생업을 출길 수 없고 나와서는 몸을 보존할

대책이 없도다. 학정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은 줄을 이었다.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구분이 드디어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판자가 말하길 사

유(四維, 예의염치)가 베를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고 하였다. 바야흐로 지금의 형세는 예전보다 더욱 심하다. (중략) 우리 무리는 비록 초야의 유

민이나 임금의 토지를 갈아먹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으면서

망해가는 꼴을 좌시할 수 없어서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고 억조창생이 의논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2023

봄

5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녹두꽃 윤철규 | 캔버스에 유채 77.5cm×95.8cm

#### 작품설명

세월은 흘렀어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부조리(不條理)가 많다. 이 그림은 나, 나의 아들 또 그 아들이 불합리를 곳곳이 이겨내라는 아버지로서의 바람을 담았다. 녹두장군(전봉준)을 배경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녹두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환하게 웃는 아이를 통해 부조리 속에서도 희망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윤철규

개인전 17회(1995~2022년, 전주·서울·익산·파리), 아시아 쌀전(2015~2022년), 중국 송장작가 교류전(2019년)

# 녹두꽃

2023

봄

51



## 표지설명

90개의 울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전국 90개 지역을 상징하는 기념공원의 기념시설물을 이미지화 하였다.

바탕 글은 백산창의문과 무장포고문을 활용하였다.



『녹두꽃』을 전자책으로 만나 보세요.

구독신청  
☎ 063 530 9416

## 차례

### 녹두칼럼

최순삼 | 순창여자중학교 교장 04

### 기념재단 포커스

기념재단 이사회 · 자문위원회 0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 유골 안치식

### 기획연재

그림에 담긴 갑오년 이야기 08

### 참여자 유족 인터뷰

박종호 | 참여자 박순만의 증손자 14

### 인권과 평화

한국의 꽃 | 마틴 게바라 Martín Guevara 22  
대학생 눈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28

### 지면전시(紙面展示) ②

동학농민혁명 전시관(박물관) 32

### 지역대담

정정숙 | 경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36

### 지역단체 포커스

전국 기념단체 행사 42

### 교육·체험, 방문단체

녹두꽃, 다시 피다 43

### 2023년 교육·체험 안내

기념관, 박물관, 기념공원 프로그램 46



통권 51호 발행일 2023년 4월 1일 발행인 신순철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소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 530 9415 팩스 063 538 2893  
이메일 1894@1894.or.kr 편집디자인·제작 두인

## 동학농민혁명 기념을 넘어, 교육이 절실하다.

최순삼 순창여자중학교 교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디딤돌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전국 각 지역에서 기념사업단체들이 창립되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고, 그 결실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그동안 갑오 선열의 숭고한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2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애국애족 정신의 범국민적 고양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황토현 전적(사적 제295호) 약 30만㎡ 부지에 아이들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조성하였다. 기념공원은 방문자센터, 연수동, 캠퍼장, 전시관(박물관), 추모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야외공간에는 동학농민혁명의 길, 기억의 들판, 농민의 벽, 울림의 기둥 등의 기념시설물을 배치한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의 시민교육 기반 시설이다.

필자는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4기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절실하게 고민한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교육이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발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다. 기념재단 자문위원으로 함께했던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은 명예 회복 못지않게, 후손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동학농민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동학농민혁명군이 목숨을 걸고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무엇인가? 동학농민혁명을 지도했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어떻게 혁명에 참여하여 활동했는가? 나아가 동학농민혁명군이 남긴 전국에 분포한 유적지들은 어디에 있는가? 동학농민혁명은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묻고, 대답해나가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은 기념재단은 물론이고 각급 기관과 단체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제로 2015년 전라북도교육청은 동학농민혁명 부교재를 초등과 중등용을 제작하여 모든 학교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권장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정읍시교육지원청과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8개 기념사업단체와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는 물론이고, 토론회와 가족단위 역사캠프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기념재단은 전국단위로 역사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가 주로 전북지역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등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혁명에 가담한 동학농민군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까지는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충청남도 태안군 등 31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동학농민혁명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전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동학농민혁명이 기념의 차원에 머무르면,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과 선양사업도 반쪽으로 남게 된다. 기념을 넘어 그 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 최순삼

순창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담당 장학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문위원회(제4기) 위원을 역임하였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3차 이사회



2023년 2월 21일 오후 2시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5기 제3차 이사회가 열렸다. 신순철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 심형기(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위의환(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재운(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위원장), 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천진기(前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박흥규(기념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결산안과 기념재단 규정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추진계획, 기념공원 시설운영 현황,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 일가 유골 관련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2차 자문위원회



2023년 2월 17일 오전 11시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5기 제2차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념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2022년도 결산(안) 및 규정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추진계획, 기념공원 시설운영 현황,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 일가 유골 관련 현황 등을 보고받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추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신순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경민(백제예술대 뮤지컬과 학과장), 김명성(前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김봉승(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김현승(변호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손주갑(동학농민유족회 대의원), 이광철(前국회의원, 녹두꽃 시민합창단 단장), 이기전(前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정신(장흥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전성진(前MBC전주문화방송 사장), 박흥규(기념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 유골 안치식

2023년 2월 17일 오후 2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추모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 유골 안치식이 진행되었다. 참여자 김응문 일가(一家) 유골 발굴에 대한 경과보고, 추모사, 유족대표 인사, 추모공연, 헌화 순으로 엄숙하게 거행된 안치식에는 김응문의 증손자 김성환 님을 비롯하여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신영우 김응문일가유골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석면 무안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원 여러 분이 참석하였다. 한편, 1894년 무안지역에서 김응문(金應文 1849~1894) 일가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참여한 일가(一家)는 김응문의 아우 김효문(金孝文, 1851~1894), 김자문(金子文, 1868~1894)과 그의 아들 김여정(金汝正, 1867~1894)이다. 이들 일가 4명은 1894년 11월 18일(음력) 고막원전투에 참여했다가 붙잡혀 무안관아에서 참수(斬首)된 후 효시(梟示)되었는데, 후손들이 이분들의 머리를 수습하여 몰래 묻어두었다고 전해져왔다. 그러다가 2022년 4월과 5월 사이 이장(移葬)하는 과정에서 김응문 일가의 유골이 발굴되었다. 이에 따라 유골의 후손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안군 등 관계기관이 모여 2022년 7월 '김응문일가유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전자검사, 유골복제,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유골의 문화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추모사 |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2. 추모사 |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3. 유족대표 인사 | 김성환(참여자 김응문의 증손자)
4. 운구(運柩), 김상원(참여자 김응문의 고손자)



# 그림에 담긴 갑오년 이야기

2023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통권 51호부터 54호까지 네 번에 걸쳐  
[기획연재] 코너를 신설, 박홍규 화가의 작품에 담긴 갑오년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봉준, 배들평야를 가다, 2021, 34×58cm, 한지에 수묵채색

## 박홍규

화가, 1959년 전북 부안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였으며,  
전북민족미술인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전 「들에서 여의도까지」(1999, 우진문화공간, 전주), 「겨울 여의도」(2011, 서신갤러리, 전주), 「新농가월령도」(2012, 서신갤러리, 전주)를 가졌으며, 2인전(박홍규·이기홍)으로 「지금, 여기, 리얼리즘」(2012, 차라리언더바, 전북 전주)이 있다.  
초대전으로는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대전·만화부문」(2010,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주), 「빈집의 꿈  
국회초대전」(2013, 국회의원회관), 「피노리 가는 길·동학농민혁명 120주년 판화전」(2014, 서신갤러리, 전주),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기념전」(2015, 전남 장흥군), 「혁명은 순정이다」(2021, 오월미술관, 광주광역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2021~22, 신동업문학관, 충남 부여) 등이 있다.  
이밖에도 「힘전」, 「동북아와 제3세계미술전」, 「쌀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탐관오리도, 2014, 45×115cm, 목판화



백골징포도, 2014, 37×120cm, 목판화

19세기 조선, 안으로는 소수문벌이 중앙권력을 독점한 세도정치 아래 탐관오리의 가렴주구가 기승을 부렸고, 밖으로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공공연한 국권침탈로 민족적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였다. 예로부터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들의 수탈이 심하였다. 특히, 19세기 세도정치라는 기형적인 정치체제 아래에서 매관매직 등이 성행하면서 관리들의 착취가 더욱 심해졌다.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지방관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일 때 갖은 편법을 동원하였다. 삼정문란(三政紊亂), 세금징수에서 편법은 백골징포(白骨徵布, 군역(병역세)을 징수하면서 이미 죽은 사람을 군적(軍籍)에 올려놓고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이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백성들을 악랄하게 착취한 탐관오리들은 흥청망청 태평하였다. 위와 같은 당시 시대상황이 '백골징포도'와 '탐관오리도'에 잘 담겨 있다. 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서늘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봉준, 새벽길을 가다, 2012, 38×70cm, 종이에 채색

끝을 알 수 없는 억압과 착취  
그 아래 신음하는 농민들을 구하고자  
동터오는 새벽, 흰 어둠을 헤치며 새벽길을 걷는다.

바람 찬 고부들판, 눈 내리는 김제만경 너른 들녘  
천지간 분별없이 내리는 저 백설은 백성들의 원한인가 하늘의 노여움인가

배고픔에 지친 맥이 없는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를 달래는 어미의 갈라진 목소리를 뒤로하고

녹두장군 전봉준, 죽음의 역사를 넘어  
새 하늘 새 땅을 열기 위하여 흰 어둠을 헤치고 새벽길을 가다.



사발통문거사도, 2016, 38x50cm, 목판화

전봉준 송두호 정종혁 송대화 김도삼  
 송주옥 송주성 황흥모 최흥열 이봉근  
 황찬오 김응칠 황채오 이문형 송국섭  
 이성하 손여옥 최경선 임노홍 송인호

계사년 11월. 고부 주산마을 송두호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사발을 얹어놓고 둥그렇게 앉아 결의하였다.

-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벨 것
-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 군수에게 아부하여 백성을 침탈한 탐학한 관리를 엄하게 징벌할 것
- 전주감영을 점령하고 서울로 곧바로 진격할 것





낮네 낮어 난리가 낮어, 2012, 38×70cm, 종이에 채색

사발통문 거사계획 소식을 접한 고부의 농민들은 매일 난망(亂亡, 난이 일어나서 망하다)을 노래하였다.  
“낮네낮서 난리가 낮서.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있겠나” 검은 먹구름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등덜미와 어깨가 예사롭지 않다.





일어서는 두승산, 2008, 32×65cm, 목판화

참다 참다 못한 고부의 농민들이 일어섰다. 역사의 어둠을 찢고 두승산이 용트림하며 일어섰다.  
고부의 농민, 조선의 만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죽창 들고 일어섰다.



재백산(在白山), 2018, 50×80cm, 목판화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에 이른 것은 그 뜻이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가운데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의 위에다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에게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을 것이니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 호남창의대장소 재백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박순만의 증손 박종호

일시 2023. 1. 12(목) 13:00~16:00

장소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실(전북, 전주)

이번 『녹두꽃』 소식지(통권51호) 유족인터뷰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박순만(朴順萬, 1851~1932) 님의 증손(曾孫) 박종호(朴鐘湖) 선생님을 모셨다. 참여자 박순만 님은 1894년 3월 임실군 운암면 소재 지천리 기포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9~11월 남원지역에서 벌어진 방아치전투와 남원성전투에 참여하였다가 패배한 후 약 6년 동안 순창 회문산으로 피신하였다가 귀가하였다. 박순만 님은 귀가한 후 아들 박노철과 함께 동학(東學)과 천도교인이 되어 교화에 힘썼다.

박순만 님의 증손 박종호는 전북 임실 청웅에서 태어나 학교를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공직에 몸담았다가 퇴직한 후 2012년부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와 전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완주군유족회 회장직을 맡아 참여자의 유족 발굴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문** 선생님 반갑습니다. 녹두꽃 독자님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박순만(朴順萬) 님의 증손자(曾孫子) 박종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을 전후에는 박 기자 상자를 쓰셨던 저의 아버지께서는 고향인 전북 임실군 지역에서 천도교 활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지난 2020년 가을에 104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을 때 25년 동안 천도교 임실교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대외적인 활동이 어려워졌던 때부터, 그러니까 2012년부터 제가 전북 전주시를 중심으로 임실군과 완주군 등 참여자 유족 분들과 함께 유족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의 본부격인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대의원을 맡아 활동하기도 하였고, 이사로도 활동

하였습니다. 그렇게 활동해오는 과정에서 전북 전주시와 인근 완주군 지역에 참여자 유족으로 등록 된 분들은 많은데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분들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모색하여 2019년 4월 22일에는 전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제가 전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 네... 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임실군에서 근무하셨지요?

**답**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일반 공무원 등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왔습니다. 주로 임실군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면장으로 퇴임하기까지 35년간 공직에 몸담아왔습니다. 1970년 새마을 사업을 시작하여 임실군에서 근무하면서 전북도립 사격장을 임실군 청웅면에 유치하였고, 두복 제2저수지를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에서는 최초로 청웅면 400헥타르(ha)에 달하는 경지정리와 93년에 임실군 삼계면 400헥타르(ha) 경지정리를 하는 등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께서는 현재 전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모임인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직을 맡고 계시면서 전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직도 맡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유족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답**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후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 집안은 천도교 임실교구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천도교 임실교구장을 오랫동안 지내셨다는 점으로도 가풍(家風)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저희 집안 내림 영향으로 저는 어릴 적부터 동학과 인연이 아주 깊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활동이 여의치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문** 네, 회장님께서 창립하시고 그 운영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전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도 그렇고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의 모임인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유족회 활동을 해오면서 선생께서 느끼시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네, 문부장님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시작한 것이 100주년 기념사업 이전부터였지요? 그래서 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구성원들, 그러니까 회원들이 다들 연로하셔서 그게 제일 어려움이 큰 대목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에 일어났으니 올해로 벌써 129주년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동학농민혁명 때로부터 지금까지 4세대가 지난 것이지요.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고통 받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신분제라는 낡은 봉건제도를 제거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만민평등세상을 이루고자 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동의 뿌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침략한 일제를 물리치기 위해 전국에서 농민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일어난 반일 의병항쟁이었잖아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어왔습니다. 다행스럽게 1994년 100주년이 되던 해에 유족회가 창립되고, 전국 각 지역에서 기념사업단체가 창립되고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 나섰고, 역사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여 동학농민혁명이 반란의 명을 벗어던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인 2019년에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다보니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원들이 거의 80세, 90세예요. 물론 유족회 회원 중에서 참여자의 손자분들도 더러 있지만 중손, 고손이 훨씬 많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족회 활동이 동적(動的)이지 못하고 정적(靜的)입니다. 유족회 회원 분들이 연세가 높다보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열리는 기념식이나 여타의 선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버거울 정도예요. 이점이 유족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창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참여자 유족 중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분들을 영입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족 분들을 회원으로 확보하였지만 연세가 많기는 매일반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못하지만 저는 전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해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분들을 독립유공자



로 서훈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에 위치한 전주동부보훈지청 앞에서 40일 동안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네, 회장님. 여러모로 애쓰십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한 활동은 물론이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참여자 유족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주시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해오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증조부님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요?

**답** 제 아버지께서도 말씀을 자주하셨고, 제 작은 아버지께서도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자세한 활동 내역까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증조부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독립운동을 하셨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후에 제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활동과 정신선양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듣고, 책을 찾아 읽고 해서 증조부님의 활동에 대



해 보다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증조부께서는 1894년 3월 임실군 운암면 지천리 봉기 때 참여하셨다는 사실이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1894년 늦은 가을에 남원 인근에서 벌어진 방아치전투, 운봉전투, 남원성전투 등에 참전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 네,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9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신청을 받아 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자와 그 유족을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무렵인 2006년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참여자로 등록이 되었고, 회장님의 아버님 등이 유족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등록사업의 업무를 추진한 분이 회장님 부친이신 박 기자 상자 선생님이셨지요? 등록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아버지께서는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이 지대하셨습니다. 1985년부터 2010년까지 25년간 천도교 임실교구장으로 재직하셨어요. 특별법이 제정되어 참여자 등록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아버지께서는 관련 사료 등을 준비하여 1차로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임실지역에서는 이후 2차로 많은 분들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제가 2000년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2007년에 전북 임실군동학농민혁명유족회 최기주 회장, 이철재 부회장 등 면장 세 명과 함께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업무를 맡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참여자를 등록하였습니다.



**문** 네, 동학농민혁명 당시 증조부께서는 고향인 임실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남원과 순창, 전주 등지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네, 저희 증조부님이 나고 자란 고향이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후 관군의 탄압을 피해 임실군 청웅면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무렵 증조부님의 동생 박용운 님은 전남 여수로 이사를 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고향인 임실군을 중심으로 남원과 순창, 전주 등지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 현재까지 기록 등으로 알려진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증조부께서는 친 동생 박용운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백우, 이현우 등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894년 3월 20일 지금의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에서 무장기포가 단행한 후 23일 고부관아를 재점령, 이곳에서 유진(留陣)하다가 26일 고부(현재 부안군 백산면)

백산으로 나아가 동학농민군 대오를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이 무렵 백산의 주력부대에 합류하기 위해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봉기가 이루어졌는데, 임실군 운암면 지천리에서도 봉기하였습니다. 증조부께서도 지천리봉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듣거나 알고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증조부님은 강진면 학석리에서 출생하셨는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강진면 대표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960년대 운암댐이 생겨나면서 일부만 남아있는 지천리봉기 때 증조부님은 친동생 박용운, 매제 이기완, 고모부님, 같은 마을에 살던 이백우, 이현우 형제 등과 함께 참여하셨다고 아버지께서 얘기해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문** 네, 증조부께서는 1894년 3월 임실군 운암면 지천리봉기 때 참여하셨으며, 그해 가을에 벌어진 남원 지리산자락의 방아치전투, 운봉전투, 남원성전투 등에 참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원 운봉전투 때 관군에게 체포되어 명석에 달려 불에 태워서 죽이려던 것을 마을 주민들이 불을 끄고 증조부님을 구출했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이듬해인 1895년 1월 15일경 강진면 주재소 왜경에게 증조부님과 친동생 박용운 두 분이 함께 체포되어 강진면 읍치마을(옛 윗밤재)에서 명석말이를 하여 불태워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를 제 아버지께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온몸에 심하게 화상을 입었고, 왜경과 관군의 계속되는 추적을 피해 회문산 깊은 산중에 피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문** 증조부께서 순창군 회문산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약 6년간 숨어 지내다가 다시 고향 임실로 돌아와 천도교 포교활동에 적극 임했다는 사실은 “朴順萬 道號 常庵 信訓法道師 甲午 甲辰 乙未 戊寅 4大運動에 參與하여 救國運動과 宗教事業에 獻身하다”(『천도교임실교사』, 최동안 편집, 1981. 93쪽)라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조부께서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생 박용운과 함께 혁명에 참여하셨고, 혁명이 끝난 이후에도 아들인 박노철(朴魯哲)과 함께 갑진년 개화운동, 을미의병, 무인 밀왜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증조부께서 형제들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고, 제 조부님이신 박노철 님께서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제가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제 조부께서도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셨는데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의 증조부님과 증조부님의 형제분, 그리고 조부님과 아버지께서 천

도교 동학포교에 헌신하셨습니다. 부친께서는 동학 농민혁명으로 다 쓰러진 천도교 임실교구를 일으켜 세워 25년 동안 임실교구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2022년도에 천도교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임실교구를 문화재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억 원의 국비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교구 복원사업을 통해 임실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와 천도교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은 물론이고, 이후 일제강점기로 접어든 후에도 3.1운동, 무인멸왜운동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시다가 1932년에 돌아가셨지요? 조부님 혹은 아버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조부님은 지금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증조부님은 동학농민혁명 이후에도 기미년(1919)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평지마을 정자나무 밑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셨고, 3월 22일 강진면 갈담리 장터에서도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게 쓰러진 후 국운은 기울어서 1905년 을사년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10년에는 일본의 총독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군과 그 정신이 혁명이 끝난 후에도 항일의병으로 거세게 불타올랐고, 특히 기미년 3.1운동, 1938년 무인년 멸왜운동 등으로 국권수호를 위한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저의 증조부님과 그분의 형제들, 매제분, 그리고 아들 등도 모두 일제침략에 맞서 국권수호를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독립유공자 기산범위를 1895년 을미의병으로부터 적용하고 있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역사학계 관계자 등이 수년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고 보훈처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전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에서도 지난해 국가보훈처 전주동부지청 앞에서 40일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문** 네, 회장님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을미의병 참가자 그러니까 양반 신분을 지녔던 사람들이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싸운 것은 독립운동이고, 평민이나 천민의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싸운 것은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목숨을 걸고 국권을 되찾고자 투쟁했던 모든 분들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적용 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박순만 님의 묘소(전북 임실군)

상자)를 보면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로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또는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어야 할 법률적 근거는 마련된 셈이지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서훈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증조부님은 지금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요?

**답** 참, 증조부님을 어디에 모셨냐고 물으셨지요? 제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얘기를 하다가 다소 격앙되어 그만 깜박 놓쳤습니다.(웃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저의 증조부이신 순자 만자 님은 현재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3번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묘소에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증조부님의 동생 윤자 운자 님은 전남 여수에 모셔져 있습니다.

**문** 잘 알고계시는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관문을 활짝 연 민주주의 뿌리이자 근대민족주의 운동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극심한 정치적 혼란 등을 겪으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극심하게 왜곡되고 축소된 채 지난 한 세기 동안 역사의 뒤편길에 버려져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재평가되어 대중적인 역사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2004년 특별법 제정, 2019년 기념일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전에는 우리와 같은 참여자 후손들은 '반란군 후손'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억울한 세월을 보내야했습니다. 다행히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역사학계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재평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전국 각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현대 민족민주운동의 뿌리로 새롭게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김대중 대통령 때 특별법이 국회의 원입법으로 상정되었고, 논의절차를 거쳐 마침내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실로 110년 만에 우리 후손들이 반란군의 후손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되어 달력에도 기재되고, 매년 정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을 성대하게 열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지요.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마무리하여 명실상부하게 참여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 네, 회장님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혹여 빠뜨린 얘기가 있거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중심이 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을 위한 범국민연대를 발족하여 그에 따른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국의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꼭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 한국의 꽃

마틴 게바라 Martín Guevara

## Flowers of Korea

2022 THE 1<sup>ST</sup>  
WORLD REVOLUTIONARY CITY  
JOINT CONFERENCE



제1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22. 12. 5.)



마틴 게바라(Martín Guevara)는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의 정치가이자 혁명가였던 체 게바라(Che Guevara, 1928~1967)의 조카이다. 스페인에서 체 게바라 연구자 및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Martín Guevara is a nephew of Che Guevara(1928~1967) who was an Argentinian-born Cuban politician and revolutionary. He currently lives in Spain and works as an author and a researcher of his uncle, Che Guevara.

—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가의 동의를 얻어  
한국사 맥락 등을 감안하여  
보완·번역하였다.  
번역: 오진경 (『녹두꽃』 편집자)

20세기 중반기만 해도 한국전쟁 등으로 아주 빈곤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그로부터 반세기를 넘어오면서 역동적인 변화를 거쳐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집값은 다소 비싸지만 수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과 아름답고 평화로운 작은 도시와 마을이 있다. 또한 한국은 자동차, 전자기술, 고급 전화기, 텔레비전, 품격 있는 영화(映畵), 의류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수십 개의 브랜드를 가진 나라이다. 때문에 다소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은 한국의 발전과 그 발전을 추동하는 역량에 감탄한다.

이 글은 2022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황토현전적(사적 295호) 일대에 조성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기념관)에서 정읍시 주최로 열린 「제1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에 참가했던 마틴 게바라에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편집자가 이메일로 원고를 요청하여 게재하게 되었다.

This article was written by Mr. Martín Guevara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as the article in 『Nokdukkot(Mung beans Flower)』, a newsletter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The editor of the newsletter requested this article by e-mail and published it. Mr. Martín Guevara participated in 「The 1st World Revolutionary City Joint Conference」 hosted in Jeongeup City 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built in the area of Hwangtohyeon battlefield(Historic Site No. 295) from December 4 to 6, 2022.

Korea made a vertiginous leap from being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to one of the most prosperous, with a dynamic, extremely fun, diverse life, full of possibilities for its large number of inhabitants, with a capital certainly crowded with people where housing it is somewhat expensive but with many smaller cities and even towns where you can develop and live an intense, beautiful and peaceful life. Dozens of leading international brands in automobiles, electronics, high-end telephones, televisions, an impeccable film and series production, clothing, all sorts of items, create the sensation of a development that may be overwhelming for some, but that generally arouses international admiration.





인사말 중인 마틴 게바라(Martín Guevara)  
(전북 정읍 황토현 전적 내(內) 불멸, 바람길 군상 앞, 2022.12.5.)

But it was not always like this. Not only because there was a cruel war between the divided country and which resulted in the bloody number of three million lives taken. Under the promise that the north would be the homeland of the proletarians and the peasants in oases of concord, something that over time was subjected to at least one insured more than debatable and the south supported by the capitalist powers would be the paradise of entrepreneurs and meritorious individuals, something also, that like everything, in the long run admits more than one debate.

Throughout the 19th century, Korea was a field where the fiercest struggles were settled during different emancipations of the

그렇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내면을 살펴보면 아픔 또한 많다. 1950년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으로 3백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나라는 둘로 나뉘었다. 그때 분단된 나라는 지금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 남과 북으로 나뉜 나라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여 첨예하게 대치, 극심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자본주의를 추구하여 눈부신 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기업가와 개인 모두 잘 사는 낙원인가 하는 점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북한은 노동자, 농민의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주의 모범국가, 계급이 없는 평등한 나라를 실현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실여부 또한 논란이 있다.



peasantry, where the organization of humble men and women took place around the idea of freedom from the dominant domination, from foreign armies such as the Japanese, of the Western powers, of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a fairer way and of obtaining a degree of dignity, which, although it requires the greatest of sacrifices, remains in the most honorable place of the peoples forever. This was the 19th century from beginning to end beginning in 1811 with the preparation of the first rebellion, the Gwanseo Peasant War and concluding in 1895 with the Donhak Peasant Revolution led by Jeon Bong Jun.

In order to address the evident and underlying relationship of this revolution with the revolutions that my uncle Ernesto “Che” Guevara fought for, I was honored with an invitation to do a job via Zoom in times of the Covid 19 pandemic, on two occasions, the first with the work “Create one, two, three Vietnam” and the second “Che Guevara in cinema and literature”. At the end of 2022 I was personally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Jeongeup International Forum on the Commemoration of Donghak Revolution with the particular theme of The 1st World Revolutionary City Joint Conference, I attended it feeling deeply honored, this time with the work “Altagracia” as the birthplace of the revolutionary icon of Latin America.

19세기 전반에 걸쳐 한국(조선)은 수많은 농민해방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평범한 수많은 사람이 자유의 이념 아래 모여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봉건 정부의 폭정에 맞서 공정한 부의 분배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투쟁하였고, 일본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다. 그때의 치열했던 전적지들은 한국 국민에게 가장 영예로운 곳으로 각인되어 있다. 19세기 조선의 농민해방투쟁은 1811년 관서농민전쟁(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1894~1895년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면서 19세기 한 세기에 걸쳐 면면히 이어졌다.

나는, 나의 삼촌인 에네스토 “체” 게바라(1928~1967, 쿠바 혁명가)의 혁명과 세계 혁명과의 근원적인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제 행사에 두 차례 초청을 받아 참여하였다. 그 첫 번째는 “하나, 둘, 셋 베트남 만들기”, 그 두 번째는 “영화와 문학으로 본 체 게바라”라는 주제였다. 이후 2022년 말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제1회 세계혁명도시연대회의’라는 특별한 주제로 정읍국제포럼에 초청 받아 라틴 아메리카 혁명의 상징이자 발상지인 ‘알타그라시아(Altagracia)’라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드넓고 아름다운 공원, 기념 기둥(조형물\_울림의 기둥), 전봉준 장군이 선도하는 동학농민군 행렬을 모티브로 제작한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 앞에서 나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또한, 세계 다른 지역의 혁명가를 기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삼촌의 말이 나의 핏줄을 타고 생생하게 울려오는 것만 같았다. 삼촌과 세계의

The first impression upon seeing the Donhak Revolution Memorial, the huge and beautiful park, the commemorative columns, the statues of the peasant warriors led on the front line by Jeon Bong Jun, was a feeling of deep responsibility, I felt as if within my veins a conversation took place, a meeting of my uncle with me, he asking me to do the best possible role to honor that revolutionary from the other part of the world, but with the exact same dreams, utopias, desire for justice and rage against abuse that he and that all the revolutionaries of the world in all times fought for.

From the beginning, the reception was very courteous and warm in Seoul itself by Ms. Oreal, from there I went to Jeonju where Sonny Kim was waiting for me with his usual good treatment, whom I finally met in person, who received me on behalf of the office of Prof. Won and Mr. Moon. I tried the exquisite Korean food, courtesy of Sonny, the next day we were join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Muhlhauser Museum of Germany, we toured the beautiful old city of Jeonju learning its history and the exemplary coexistence of different religions and cultures.

The reception at the Donhak Revolution Memorial hall was equally warm, precise, once we left our bags, we were taken to a



동학농민혁명 대서사시, 창무곡 '천명' 갈라쇼

혁명가들이 꾸민 꿈, 유토피아, 정의에 대한 갈망, 학대에 대한 분노는 공간과 시대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이념이자 지향이기 때문일 것이다.

제1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의 관계자들은 매우 따뜻하고 정중하게 환대해주었다. 서울에서는 오레알(Oreal) 씨가 맞이해주었고, 전주에서는 김승수 전북도 사무관(Sonny Kim)이 친절하게 맞이해주었다. 그리고 정읍시에 도착하여 연대회의의 행사 관계자인 원도연 교수(원광대학교)와 문병학 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사무관의 호의로 훌륭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고, 다음날 독일 뮐호이저(Muhlhauser) 박물관 대표단과 함께 아름다운 옛 도시, 전주(全州)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전주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정읍시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계자의 집대는 매우 따뜻하고 섬세하였으며 우리는 짐을 놓고 지역의 정치, 문화, 관계자들이 있는 대규모 연회에 참석하였다. 연회에서 돌아온 나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깃든 밤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곳곳을

meal, in which we were honored with a large banquet presided over by different political, cultural and business personalities from the area. Once we got back, I went for a walk around the entire Memorial area, enveloping the night in a mystical air. The morning of the event in front of the monument in honor of Jeon Bong Jun and the rebellious peasants was cold, we walked in silence, or talking softly, to the monument where several rows of chairs and portable stoves were waiting for us, a beautiful traditional dance was waiting for us and then a the mayor's speech, a few words from each guest, including some from this humble servant, and then we made the floral offering, at which point, in the morning cold that invited a hieratic attitude, not jocular, but silent and dee serious rictus, and between the presence of my uncle in my veins, I felt a familiarity carved in respect with all those men and women who had the courage and integrity, not only to rebel against so much injustice, but to sow a seed that would germinate in millions. of flowers throughout Korea. I felt a current go through my spinal cord. The act in the theater was impeccable in every way, emotional, high quality of the Korean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the technical aspect was impeccable. The work that has been carried out to maintain the memory of an episode deeply linked to the earth has been a titanic task. The visit to Jeon Bong

Jun's house was for me a moment of great emotion, a connection not only with the struggle, with the demands, but also with family love, work, daily life here and everywhere. My gratitude for being so honored is comparable to everything I've learned about the people of Korea, and the love I've grown for that great and beautiful country.

둘러보았다.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을 기리기 위한 기념조형물(불멸, 바람길 군상) 앞에서 행사가 있는 아침나절은 매우 추웠으며 조용히 담소를 나누며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여러 줄의 의자, 이동식 난로 그리고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춤이 준비되어 있었고 정읍시장의 연설, 내빈 인사말, 헌화가 진지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행사 내내 나는 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삼촌이 살아 숨 쉬는 것만 같았다. 수많은 불의에 항거했을 뿐 아니라 한국 전역에 수많은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린 동학농민군의 용기와 그들의 숭고한 정신에 나는 존경심이 들었다. 나의 등골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했다. 무대 위에 펼쳐진 공연(창무극\_천명)은 기법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으로 감동적이었다. 이 작품은 지구상의 한 사건(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기 위해 제작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이어 우리는 전봉준(장군)이 살았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곳에서 투쟁과 항거뿐 아니라 고택 곳곳에 깃들여 있는 가족애, 일상생활 등을 엿볼 수 있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 국민이 가르쳐준 모든 것과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 대학생 눈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이번 호 소식지 녹두꽃 [인권과 평화] 코너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직무 인턴'에  
참여한 대학생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합니다.

일시 : 2023년 2월 14일 10:00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도서관

대상 : 박승환 박종은 임환재 박소영 이수민 정유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박승환(한국기술교육대 2학년), 박종은(전주대 4학년), 임환재(전주대 4학년),  
박소영(진주교육대 3학년), 이수민(조선대 3학년), 정유미(원광대 4학년)

❶ 안녕하세요. 앞으로 우리 사회를 깊어지고 나갈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직무 인턴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환제.** 저는 역사콘텐츠학과에서 역사와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평소에 박물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대학생 직무 인턴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의 친가(親家)가 정읍 고부 신중리 대피마을에 있어 자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 동학혁명모의탑과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제 할머니댁 뒷집이 사발통문을 작성한 장소여서 자연스럽게 동학농민혁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조사하여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했었고, 지난해 새롭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박물관이 개원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직무 인턴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민.** 저는 대학 4학년이 되니 방학을 좀 더 알차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께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을 모집하니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도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기관에서 업무를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정읍이어서 같은 지역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의미도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전시관(박물관)앞에서

❷ 재단의 위치가 도시와 다소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재단을 선택해 준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학생 직무 인턴은 총 7주 과정으로 지난 1월부터 시작하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인턴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저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저서 및 논저 등을 정리하고, 자료들을 스캔해서 전자 문서로 변환한 다음에 그것을 재단 홈페이지 동학농민혁명 사료(史料) 아카이브(구 종합지식정보시스템)에 올리는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를 하나하나 올리는 일이 번거로워서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의문스러웠는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니 뿌듯했습니다.





추모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분들께 묵념하며



기념재단 열린도서관(녹두학당)에서

**이수민.** 저는 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분들께 전화로 새해 인사도 드리면서 유족 명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도왔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인등록된 참여자 분들보다 확인되지 않는 참여자분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숙연해졌고 지금 제가 서 있는 나라가

많은 분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께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박승환.** 현재 재단에서는 재단 직원뿐 아니라 방문객들도 자유롭게 동학농민혁명 관련 도서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에 '열린도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3월 오픈 예정인 도서관에 책을 정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쉽게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 많은 분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2023년 1월 첫 주부터 시작된 대학생 직무 인턴 활동이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직무 인턴을 마무리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 면이나 같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은.** 저는 '혁명'하면 프랑스 혁명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단에서 직무 인턴을 하기 전에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동학농민혁명이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으로 잠깐 배웠고 이곳에 와서 공식 명칭이 '동학농민혁명'이고, 2019년에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기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좀 더 배울 수 있었고, 다른 나라의 혁명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혁명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점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면 대다수가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근데 왜



굳이 알아야 해?”라는 대답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학교에서 역사교육을 할 때 동학농민혁명보다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등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독립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을 좀 더 비중 있게 교육하고 답사 등 현장교육을 좀 더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임환재.**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어서 평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재단에서 일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전시관(박물관)에 전시된 참여자 한달문, 유광화의 편지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당시 실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다른 근현대 민주화 관련 사건들보다 더딘 것 같고 국민의 인식 또한 조금 뒤처지는 듯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유미.** 솔직히 저는 공대생이라서 역사 쪽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학교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해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직무 인턴 활동에 참여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했던 ‘하늘이 사람이다’라는 차원 높은 인류애를 배우게 되어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동학농민혁명을 의미 있게 느낀 것처럼 여러분과 같은 세대, 젊은이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올림의 기둥 앞에서



# 동학농민혁명 전시관(박물관)

전국에서  
민중·민족 항쟁이 일어나다

동학농민혁명 추모관 전시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안에는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동아시아와 세계사적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전시관(박물관)이 있다. 2022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에 개관한 전시관의 규모는 연면적 1078.58m<sup>2</sup>로 현재 국립박물관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전시관은 ❶민중의 힘으로 사회를 개혁하다 ❷전국에서 민중·민족 항쟁이 일어나다 ❸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❹동학농민군의 고난과 희생을 되새기다 ❺한국 근대 민주정신의 큰 줄기가 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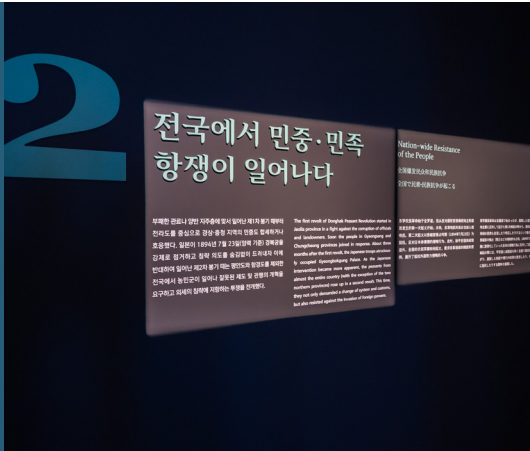
이번 호에는

Part. ❷전국에서 민중·민족 항쟁이 일어나다 파트를 지면으로 소개한다.



## Part. 2

### 전국에서 민중·민족 항쟁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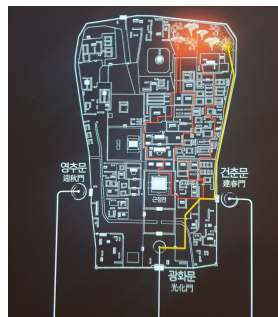


1894년 봄, 전라도를 중심으로 거세게 타오른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무단점령 이후 경상·충청지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한 후 조선정부의 파병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출병하였고, 대륙침략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군도 조선으로 진출하였다. 나아가 일본군이 7월 23일 경복궁 무단점령, 친일내각을 수립하여 청일전쟁을 도발하였고, 혁명의 불길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반일 민족항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 일본이 은폐한 경복궁 무단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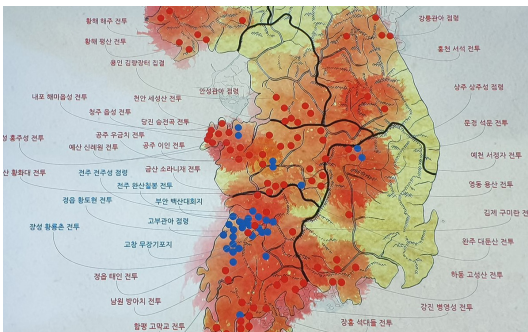


청일 양국 군대의 조선 진출이라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한 조선정부는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 측에 청일 양국 군대의 철병을 요구할 명분을 위해 전주성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른바 전주화약에 따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물러났고, 조선정부는 청나라와 일본 측에 철병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급기야 일본은 조선의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청나라 측에 조선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청나라가 이에 반대하자 일본은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경복궁 무단점령의 이유를 “조선군이 경복궁 근처를 지나가는 일본군을 갑자기 공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라는 억지주장을 폈다. 그러나 1994년 경복궁 강점의 실상을 담은 『일청전사』라는 책이 발견되면서 경복궁 무단점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었음이 드러났다.



일본군의  
경복궁 무단점령 경로

## 전국에서 일어난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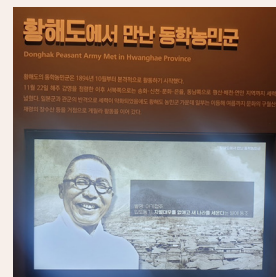
전국 동학농민혁명 봉기 현황

1894년 봄, 호남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으로 확산되어 관군이나 유학을 공부한 양반들과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31일 전라도의 수부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이른바 전주화약에 따라 관민상화의 원칙에서 전라도 전역에 집강소를 설치, 근대적인 폐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전라도의 집강소 활동의 영향으로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에서도 농민항쟁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7월 충청도·경상도, 9월 경기도·강원도·황해도 등지에서 반일항전의 기치가 올랐다. 마침내 10월 8일 호남의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삼례에서 제2차 봉기를 단행하였다. 이후 동학교단에서도 일본군을 축출하기 위해 봉기하라는 전국 대동원령(기포령 起包令)을 내렸고, 황해도에서도 동학농민군의 반일항쟁이 본격되었다.

##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한 투쟁



반일항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만이 아니라 조선의 관군과 각지의 유생들이 조직한 민보군과도 싸워야했다. 이 무렵 반일항전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은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직접 전선에 나선 동학농민군 이외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항전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동학농민군에게 군량(軍糧)을 지원하거나 동학농민군 주둔지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반일항전에 참여하였다.



### 황해도 지역에서 만난 동학농민군, 백범 김구

백범 김구(당시 이름은 김창수金昌洙)는 황해도 해주부와 장연부 사이에 위치한 벽성군 팔봉산 부근에 살고 있었다. 당시 열여덟 살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다. 황해도와 평안도에 속해있는 책임자 중 나이가 어려 '아기집주'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차별대우를 없애고 새 나라를 세운다는 말에 김구는 동학에 입도하였다.

## 경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정정숙 경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소식지 『녹두꽃』(통권51호) 지역대담에는 정정숙 경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을 모셨다. 정정숙 회장은 천도교 교회관장, 사회문화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20년 5월에 경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창립하여 공부방 운영, 학술발표회, 유적지탐방, 전시회, 기념식, 문화행사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893년 이천의 동학교도 수천 명이 동학에 대한 탄압과 관리들의 탐학에 항의한 것을 시작으로 1894년 가을(9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 죽산과 안성 관아를 점령하기도 하였다.

일시 2023. 1. 18.(수)

장소 경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실 \_ 근현대사미술관 담다 내(內)



● **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통권 51호) <지역대담>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정정숙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 **답** 녹두꽃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정정숙입니다. 저는 천도교중앙총부에서 23년간 근무한 후 2019년에 퇴직하고, 지금은 용인에서 <근현대사미술관 담다>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주로 대한민국 근·현대 그림을 전시하는데,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한반도 평화 등에 관한 작품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술관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인문학 강좌, 작은 음악회, 전시작품 투어 등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미술관을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 네, 회장님. 이렇게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웃음) 회장님이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근무하시던 2018년이었지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제정되기 전이라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매년 10월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념대회'를 개최하였었습니다. 2018년 기념대회는 기념재단과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 이렇게 세 기관이 공동으로 강원도 홍천군 자작고 개전투지에서 개최했었는데, 그때 기념대회 추진하느라 회의를 자주했었지요.

● **답** 맞아요, 그랬었지요. 기념대회 장소가 강원도라 회의를 하려면 하루가 꼬박 걸리곤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지금보다는 더 혈기 왕성하였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 기념재단, 유족회, 천도교가 힘을 모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전국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었죠. 저도 기념대회를 추진하는 실무대표로 참석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당시 문부장님과 의견차이로 자주 다투었던 일도 있었죠(웃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부장님이나 저나 참 열정이 넘치던 때였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내용을 기념대회에 담고자 서로 밀고 당기고를 많이 했었어요. 강원도에서 열린 기념대회 이후 저는 천도교중앙총부 실무를 그만두고 경기도 용인으로 와서 지금까지 <근현대사미술관 담다>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 더욱 반갑고 정겹습니다.

● **문**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35개입니다. 기념사업 단체 창립의 흐름을 보면 대체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10여 개 단체가 창립되었고,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여 개 단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5개 단체가 창립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천도교중앙총부 실무에서 물러나 경기도로 오신 후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에 경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창립하셨지요? 창립 전후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 2019년에 용인에 미술관을 개관하고부터 지역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찬찬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느라고 기념사업회, 계승사업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기념사업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미술관에서 동학을 주제로

시리즈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2020년 5월 채길순 교수님을 초청하여 “길에서 만난 동학”이라는 주제로 인문학강좌를 개최하였고, 이 강좌에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발기인대회를 가졌습니다. 2020년 7월 열린 총회에서 제가 회장에 추대되었고, 2021년 3월 경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단체등록을 마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 경기도 지역에 동학(東學)이 전파된 것은 굉장히 이른 시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천도교회사초고』(天道教會史初稿) 기록에 따르면 동학 창도 초창기 때인 1862년에 경북 경주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 등 16곳의 접주를 정했는데, 이때 대구·청도 및 경기도 접주로 김주서(金周瑞)를 임명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경기도 지역에서 동학 교세가 급격하게 확산된 것은 1880년대 초로 안교선(安敎善)이라는 분이 중심적인 활동을 펼쳤고, 1890년대 동학교도가 수만 명으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동학이 전파되던 초창기와 1880~1890년대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천도교창건록」을 보면 동학이 경기도에 처음으로 포교된 것은 1862년으로 보입니다. 1860년 4월 5일(음), 경주 용담에서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 선생은 이듬해 1861년부터 본격적으로 포교를 전개하였는데, 동학은 새로운 삶을 갈구하였던 민중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하였습니다. 입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수운 선생은 1862년 경북 흥해에서 동학 최초의 조직인 접주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경기 지역에도 접소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교단 조직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천도교회사초고』(天道教會史初稿) 기록에 따르면 1862년 각 지역에 접주를 정했는데, 이때 대구, 청도를 겸한 경기 접주로 김주서(金周瑞)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도교백년약사』에는 경기지역 접주로 이창선이 임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기록에서 접주의 이름은 다르지만 접주를 둘 만큼 경기도에도 교세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883년에 손병희, 박인호 등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인물들이 동학의 2세 교조인 해월 최시형을 방문하고 지도를 받았는데, 이때 경기지역에서는 안교선과 서인주 등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안교선은 안교백, 안교강 등과 수원을 비롯하여 경기 지역에 동학을 포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안승관, 김내현, 이민도 등이 수원지방의 유력한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한편 서인주는 1883년 3월 손병희, 김연국과 함께 해월 최시형을 방문한 이후 동학교단에 투신, 공주 교조신원운동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교선은 호남 출신으로 해월 최시형이 1883년 여름 경주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할 때 윤상오와 함께 유사(有司)로 참여하였습니다. 서인주는 해월 최시형과 함께 동학을 창시한





수운 선생에게 수학하였지만 교단 초기에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포덕천하(布德天下)와 광제창생(廣濟蒼生)에 크게 공감을 받고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서병학(徐丙學)과 함께 동학의 의식과 제도를 제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에 동학을 포교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로인해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남부지역에 동학 교인이 수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교세가 크게 확장됩니다.

1880년대 후반에는 경기지역의 동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대접주(大接主), 대접사(大接司), 접주(接主), 육임(六任) 등의 교단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교세를 바탕으로 경기지역의 동학은 1892년과 1893년 수운 선생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서인주와 서병학의 주도로 전개된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에도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 네, 얘기를 조금 진전시켜 1894년 갑오년 전후 경기도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 동학 교인들은 1892년과 1893년에 전개되었던 충청도 공주 교조신원운동, 전라도 삼례 교조신원운동, 광화문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였고, 1893년 3월 10일 보은 장내리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취어」, 『동학란기록』(상) 3월 27일 보고를 보면 “26일 수원과 용인 등지의 동학교인 3백여 명이 보은 장내”로 왔으며, 28일 보고에는 “수원집에서 6, 7백여 명이 장내리 삼마장 장재평에 기를 세우고 진을 풀었다”, 30일 보고에는 “어제 들어온 점인들이 장재에서 광주 교인 수백 명과 함께 장내에 이입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 참가한 동학 교인이 27,000여 명이었는데 이들 중 경기도 지역에서 참가한 동학 교인이 2,660여 명으로 전체의 약 10%에 이릅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충청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죽산과 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동학군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수원, 죽산, 안성, 이천, 용인 등지에서도 동학농민혁명군들의 활약이 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는데도 여태까지 경기도에 기념사업회가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늦게나마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념사업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어께가 무겁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창립 이후 매월 한 번씩 동학공부방을 운영하여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공부하고, 동학유적지 답사를 통해 회원 간 결속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학술발표회, 전시회, 체험, 유적지 탐방 등을 펼쳤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라고 한다면 '경기도 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발표회'를 통해 용인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해 지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답사를 통해 「양호우선봉일기」에 나오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활동 거점이었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3-28, 133-37번지 일대를 회원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참가했던 분들이 그곳에 표지석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지역에 대한 학술연구, 유적지 발굴, 표지석 건립, 청소년 교육체험, 동학관련 작품·사진·유물 전시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일도 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문** 네, 회장님. 회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니까 어디를 가시든 일이 회장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웃음) 이번에는 동학농민혁명의 현재화 또는 미래화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19세기 중엽 동학이 창도되던 시기는 문명사적 전환이 요청되던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으로는 중세 신분제가 붕괴하면서 근대적 질서가 도저하게 형성되던 때였고, 밖으로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로 들어선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세계 각국을 침략하면서 정치정세가 격동하던 때였습니다. 이와 같은 격변의 한 가운데에서 시천주(侍天主) 후천개벽(後天開闢)을 골자로 동학(東學)이 창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60여 년이 지난 지금 문명적 대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연한 이기주의, 코로나 팬데믹, 기후 온난화 등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1860년 동학이 창도되던 때의 시대적 상황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그 현재적 의미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 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거의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자본주의 근대문명 하에서 인간이 무모하게 성장과 발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자연 등에 범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연,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모심(侍)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이루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문명의 전환은 바로 의식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모시고, 자연을 모시고, 하늘을 모시는 것 바로 이것이 동학이 주는 교훈입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탄소중립 구

호가 나오고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기후위기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대체에너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대체에너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대전환을 위해 동학이 주는 모심(侍)의 교훈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학 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 수 있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문** 네, 회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19세기 중엽 동학이 창도되었고, 19세기 말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두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까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동학의 가르침은 여전히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초입, 심각한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아 동학에서 길을 찾자는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오늘도 경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동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앞으로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분 두 분 동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법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분들이 모여 희망을 만들고 역사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소중하기에 또 그것이 희망이기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에 어린이, 젊은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모심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학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회장님. 경기도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산양은 물론이고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제반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계시는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할 얘기가 태산 같이 많으시겠지만 지면 관계상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인 <근현대사미술관 담다> 이사장과 정정숙 경기기념사업회 회장

##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7주년 기념행사



2023년 1월 10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7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고창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봉정식, 헌화, 기념사, 축사, 초청강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800여 명의 고창군민과 윤준병 국회의원,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제129주년 고부농민봉기 기념제



2023년 2월 15일 정읍시 이평면사무소 광장에 설치된 특별무대에서 제129주년 고부농민봉기 기념제가 열렸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고부봉기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군 진군행렬을 시작으로 문화공연과 기념식 등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시민 300여 명과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희청 동학농민혁명고부봉기기념사업회 이사장, 최금희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해철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 심재식 정읍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 녹두꽃, 다시 피다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념공원 생태탐방 ‘녹두모험단’, 미션을 해결하는 역사탐방 ‘1894년, 녹두꽃의 기억’, 박물관 온라인교육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박물관 스스로학습 ‘1894! 가보세 갑오세’ 등 어린이·가족(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박물관, 1894! 가보세 갑오세



광주 건국초등학교(2022. 11. 10.)





(2022. 11. 20.)



(2022. 11. 27.)



(2023. 2. 12.)



(2023. 2. 19.)



## 기념공원, 1894 녹두꽃의 기억



정읍서초등학교 (2022. 11. 22.)



정읍배영중 (2022. 11. 25.)



광주 비야고등학교 (2022. 11. 29.)



단체 방문객

아시아문화전당(2022. 2. 8.)



단체 방문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2023. 2. 4.)



# 2023년 교육·체험 프로그램

## 기념관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관외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국)초·중·고	해당 학교	3~12월
관내	창수야, 놀자!	만5세 이상 ~ 초등 3학년	기념관, 기념공원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라	초등 4학년 ~ 고등		
답사	1894 시간여행	(전북)중·고생	기념관, 전북 유적지	9~11월
	녹두 꾸러기 탐험대	(전북)초등 5·6학년		
교원 직무연수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전국)초·중등 교원		7~8월
생생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2일	일반인		6~9월
	파랑새를 찾아서	다문화 가정		9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녹두장군 이야기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7월
	꿈을 품은 박물관	(전국)중등		10월

## 박물관 / 기념공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상설	1894! 가보세 갑오세	(전국)모든 대상	박물관	1~12월
온라인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전국)초등 4~6학년	온라인 (ZOOM)	3~11월
관내	녹두모험단	유아 만4세 이상/ 단체	교육관, 기념공원, 전시관	4~11월
	녹두탐험단	초등 1~3학년/ 단체		
	1894년, 녹두꽃의 기억	초등 4학년~ 고등/ 단체		

※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1894.or.kr>)를 참고하세요. 문의: 063-530-9400

#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자료) 기증·기탁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자료)을 기증·기탁 받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해주신 소중한 유물(자료)은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및 전시 등에 활용하고,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 입니다. 관련 유물(자료)을 소장하고 계신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기증·기탁

-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고서적, 사진(무가농경 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서신 및 자료 등
- 기타 기념재단에서 연구·전시·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자료

## 2. 수집 방법 : 대상 유물 확인 후 수령

- 기증 : 유물 소유권을 기념재단에 기부
- 기탁 : 유물만 기념재단에 일정기간 위탁 (유물 소유권은 소장자에게 있음)

## 3. 관리 및 활용

- 수장고 보관 등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전시·교육 자료로 활용
- 기념재단 소장품 등록 및 필요에 따라 특별전 진행 (기증·기탁자 표기 및 예우)
- 중요 자료 문화재 지정 추진

## 4. 기증·기탁자 예우

- 기증·기탁증서 및 감사장(패) 수여 (필요시 기증식 거행)
- 기념재단 중요 행사 시 초청
- 간행 학술도서 및 학술자·도록·소식지 등 발송

## 5. 기증·기탁 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 주소 및 문의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 063-530-9433)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 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등록신청 대상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외손 포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부터 봉건체제 개혁 및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봉기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 가.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나. 제출 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온라인 및 FAX 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063-530-9434 ~ 5
  - 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http://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http://www.1894.or.kr))
-